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화순 박순철

2018년 9월 4일 화요일

여수시, 밤마다 불꽃축제

교통 · 안전 막바지 점검

‘힐링인여수’ 주제 볼케이노 · 오로라 · UFO 불꽃 등 연출



여수밤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불꽃쇼 ‘2018 여수밤바다 불꽃 축제’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수시는 오는 8일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마지막 축제 준비에 전념하고 있다고 3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올해 여수밤바다 불꽃축제의 주제는 ‘힐링 인 여수’다. 폭염을 보낸 시민과 관광객들이 불꽃을 보며 ‘힐링’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시는 이번 축제의 특징으로 불꽃과 해설을 이용한 전개, 음악 등 멀티미디어가 결합된 입체적 불꽃 연출, 스토리텔링 불꽃쇼 등을 꼽는다.

불꽃쇼는 크게 3막으로 펼쳐진다. 1막은 ‘볼케이노 불꽃’으로 호기심

과 설렘, 행복이 가득한 여행을 표현한다.

2막은 사랑을 주제로 ‘오로라 불꽃’, ‘UFO 불꽃’ 공연이 펼쳐진다. 가장 절정인 3막에서는 불새모형에서 불꽃이 나오는 불새연출을 관람할 수 있다.

국내외 12곡의 음악에 맞춰 연출하는 불꽃쇼, 빨간색·파란색·노란색 등 다양한 색감의 불꽃을 쏘는 ‘멀티컬러풀 불꽃’ 등 지난해 축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신규 불꽃쇼도 빼놓을 수 없는 불거리다.

여수소방서, 여수경찰서, 여수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도 화재사고 대비, 질서유지, 선박통제 등에 적극 협조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여수의 낭만을 느낄 수 있도록 더 확장하고 더 알찬 불꽃쇼를 준비했다”며 “남은기간 관람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통대책과 안전대책을 제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수=송기홍 기자

화순군,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화순군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강화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팔을 걷어붙였다.

가족체계에 따른 가족기능 약화 및 사회양극화 등에 따른 아동 빈곤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빈곤 가정 아동과 기족에 초점을 둔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모든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제공하고자 화순군드림스타트가 2010년 5월에 개소하였다.

2018년 현재 242명의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보육분야로 구성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4명이 13개 읍면을 관리하고 있다. 취약계층(수급자·차상위계층·보호대상한부모기정·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0세부터 만 12세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해 인적조사·욕구조사,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 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대상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

역지원을 연계하고 주기적 재사정 및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은 복지(정서), 건강(신체), 보육(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필수서비스, 맞춤형서비스로 나눠서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담양군, ‘두발로 죽죽(竹竹)’ 건강걷기 지도자 간담회



자세, 질환별 걷기법, 비른 보행운동 법 및 걷기지도자의 자질과 리더십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을 수료한 걷기지도자는 ‘걷기지도자 양성교육’을 수료하고 2급 걷기지도자 자격증을 받아 각 지역 걷기동호회에서 건강걷기운동 생활화를 통한 건강생활 실천에 앞장서는 ‘건강리더’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및 생활수칙 실천교육과 지역예방 실버인저널이 ‘쉼터 강습도 함께 참여자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군은 10월 중 ‘메타세퀴아아 건강 걷기대회’를 개최하고, 12월 중에는 각 건강걷기 동호회별 체지방 감소율, 균형 증가율 등호회 참여도 등을 평가하는 ‘건강걷기 평가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순복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지역별 걷기리더를 통해 올바른 건강 걷기 운동 확산 및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으로 군민의 건강수명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영암군, 수돗물 안정적 공급최선

영암군 수도사업소가 폭염속 수돗물 안정적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영암군 수도사업소는 계속되는 기름과 기습적인 강우에 대비 깨끗한 수돗물을 안전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영암군 저수율은 평균 30%에서 45%수준으로 상승하였고 하루 4만여톤의 생활용수와 1만5천여

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이에 안정적인 수도시설 운영을 위하여 직원들이 직접 정수장 여과지 산취작업, 트럼프청소, 침전지 청소 및 정수장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수원지 저수율이 증가됨에 따라 정수장에 유입되는 원수에 대한 수질감사를 강화 하여 수질검사를 매일 실시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자체수원

저수율이 낮아 광역상수도와 연계 하여 단수없이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영암군 수도사업소장은 “유례없는 폭염이 지속되고 강수량도 예년에 비하여 적어 광역상수원도 저수율이 30%대로 가을에도 비가 많이 오지 않을 경우 겨울철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절수기사용등 수돗물 사용량 절감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영암=조대호 기자

영암군, 민선7기 공약사업 주민참여평가단 토론회 개최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부터 각계각층 의견 수렴 반영



회를 개최하여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난 8월 군 홈페이지를 통해 군민이 직접 공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출하였고, 광주전남연구원 전문가에게 공약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각계각층의 군민 대표로 구성된 주민참여평가단에게 공약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토론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9월초 민선7기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민선7기 공약사업은 7개 분야, 58개 사업으로 예산사업 56건과 비예산사업 2건으로 총사업비 2,536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게 되며, 임기내 2,514억원과 임기후 22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사업별로 보면, 신규사업은 27건

계속사업은 31건이며, 이중 복지분야가 26%, 농업분야가 24%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민선7기 군정방침에 부합하는 군민행복시대 완성과 부농의 꿈을 목표로 군정에 총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공약사업을 분야별로 보면,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영암 건설 15개사업, 457억원 ▲일자리 창출과 생동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4개사업, 161억원 ▲생명산업과 최첨단 농업 신도 14개사업, 471억원 ▲자동차튜닝·항공·드론산업 활성화 4개사업, 699억원 ▲역사문화관광·스포츠산업 집중 육성 7개사업 356억원 ▲깨끗하고쾌적한 일등영암 만들기 8개사업, 153억원 ▲조화롭고 활기 넘치는 지역균형 발전 6개사업, 235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공약을 100%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후 군민 의견이 수렴된 공약사업을 확정·발표한 후 2019년부터 공약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국도비 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몇몇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화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물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체 관리 병행